불교TV 전국서 시청가능

최근 국제위성 사용계약 마쳐

전국 어디에서나 불교텔리비전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깊은 산중 사찰은 케이블 설치가 불가능해 유선방송인 불교텔리비전의 시청 여부가 불부명한 상태였다.

그러나 불교텔리비전(대표이사·태응)은 최근 국제위성기구위성을 이용 '96년부터 무궁화위성을 사용할 계획인 한국통신과 계약을 체결, 위성안테나를 설치하면 깊은 산중사찰도 시청가능케 할 계획이다.

종합유선방송측은 프로그램이 종합유선방송국을 거쳐 각 가정까지 분배하는 과정에 위성과 케이블을 이용하는 두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분배망은 한국통신이 11개 공급자용을 건설하고 있으며 한국전력이 10개를 맡고 있다.

한국통신은 위성으로 연결, 한국전력은 케이블로 연결한다. 불교텔리비전은 불교인구의 주거환경을 고려해 한국통신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시청자들을 전폭적으로 수용, 영상포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한 관계자는 "위성안테나 설치로 폭넓은 시청자 확보가 가능해져 불교문화보급 영역이 크게 넓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94 방송 보도상 수상 BBS 이영일부장

불교방송 이영일부장(보도국)이 지난 8일 '94 방송보도상 시상식 및 송년의 밤'에서 라디오 보도제작상을 수상했다. 수상프로그램은 이영일부장이 지난 10월 총지휘 방송보도한 「법고와 죽비」의 '한국불교의 현실과 미래' 좌담프로.

BBS백팔가요 공개 방송 동두천시에 천만원 성금

불교방송 '백팔가요' 공개방송 「동두천 시민과 함께」가 지난 3일 소년소녀가장돕기의 일환으로 동두천 시민회관에서 열렸다.

김홍국씨의 사회로 공개녹음된 이날 행사는 3천여명의 동두천 시민이 대성황을 이뤘다.

동두천 해병전우회는 이번 행사에서 모금된 1천만원의 성금을 시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불교방송 돕기운동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으로 밝혔다. 공개녹음된 이날 백팔가요는 지난 11일 방송됐다.

BBS「차 한잔의 선율」 정목스님 다시 진행

◇ 정목스님

정목스님이 불교방송 '차 한잔의 선율'에 지난 1일부터 1년의 공백을 깨고 다시 방송을 시작했다.

지난해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 방송을 중단했던 정목스님은 방송포교를 위해 다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클래식 소품위주의 음악과 정목스님의 정감어린 멘트가 '차 한잔의 선율'을 잔잔하고 편안하게 불교방송 애청자들을 이끈다.

불자들 훈훈한 세밑만들기 앞장

각종단 신행단체, 불우시설 자비손길 펴기 활발

◇ 지난 3일 이웃돕기운동 추진협의회가 명동에서 개최한 성금모금운동에 참가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어린이에게 사랑의 열매를 달아주고 있다.

연말을 맞아 이웃과 함께 훈훈한 세밑 만들기 움직임이 활발하다. 각 종단은 물론 사암, 신행단체들이 이미 불우이웃돕기에 나섰는가 하면 군부대, 교도소, 양로원등의 시설을 방문 위문공연을 펼칠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 3일 명동 조흥은행앞에서 열린 이웃돕기운동 추진협의회가 주최한 이웃돕기 성금모금운동에 참여하고 성금을 기탁했다.

태고종은 지난 1일부터 95년 1월 31일까지 두달동안을 '연말연시 이웃돕기 및 청소년 선도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각 교구 종무원을 중심으로 불우이웃돕기와 청소년선도를 위한 법회 및 계몽활동을 편다.

천태종도 오는 18일 각 지역 사암별로 불우이웃을 초청 장학금 전달과 경로잔치를 베풀고 인근 군부대와 경찰서도 위문할 계획이다. 이밖에 관음종 진각종 보문종등 20여개 종단이 양로원, 고아원, 재활원등 불우시설과 해당지역 불우이웃을 방문 현금, 쌀, 의류등 생필품을 제공하고 각종 위문잔치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조계종은 종단차원의 이웃돕기관련 행사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산하 사암과 신행단체들은 자비의 손길펴기 움직임을 전국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불교단체나 신행단체들도 연말을 맞아 불우이웃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본부는 지난달 28일 부산행사에 이어 오는 26일에도 '어려운 이웃과 나눔의 기쁨을'이란 주제의 음악회를 호암아트홀에서 개최한다.

불교방송은 동짓날을 맞아 오는 22일 서울 경기지역 주요 사찰에서 이웃돕기 모금방송을 전개한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도 생활이 어려운 선원 신도들에게 쌀등 생필품을 전달하는등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부산지원도 지난달 25일 부산지역 소년소녀가장 1백세대에 성금 2천5백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제주지부와 도내 관음사부설 관세음합창단도 지난달 13일 정신요양원과 양로원등을 방문 위문공연을 가졌다.

대한불교교화연합회는 18일 신망애 복지타운을 방문 이곳 고아원 양로원에 쌀, 연탄등 생필품을 제공하고 서대문구지역 불우청소년에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

불자가수회도 같은날 도곡동 선림원에서 시각장애자 1백여명을 초청, 위문공연을 갖고 의류등을 선물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부산불교산악회등 많은 신행단체들이 불우한 이웃과 연말을 함께 할 계획이어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세밑을 훈훈하게 해 줄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월주스님 취임사 (요지)

불교가 가지는 생명력은 인간과 세계를 함께 구제하는데 있습니다. 존재에서 생겨난 모든 문제는 생명있는 것들에 대한 무한한 동체대비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족간·종교간·지역간·계층간의 이기주의를 극복할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불교 정신의 회복에 있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복고주의적인 경향이나 인간만을 위한 문명 이기를 발전시키는 것이 곧 진보인 것으로 생각하는 풍토 등도 불교의 물이 해에서 비롯되어진 것들입니다. 분명 나 자신은 물론 범인간적·범세계적인 규모에서의 공존·공생·공익의 원리는 불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의 다변화 사회 속에서는 경제 질서를 중심으로 사회·문화등 여러 면에 걸쳐 이분법적 논리가 더욱 심화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인구 증가와 식량·자원의 수급문제, 환경파괴에서 비롯된 지구 온난화 문제 등 인간이 일구어낸 또 다른 역기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인들은 크고 작은 원력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결연한 자세로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하여 모든 불자들에게 계율을 청정히 호지할 것과 수행을 건전하게 진작시키며 교단의 위계질서를 엄정하게 가질 것을 충심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 집행부도 이러한 대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몸소 실천할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앞으로 종단의 여러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교계 내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가 균림하는 것으로부터 대중에게 회향한다는 자세로 종무에 임하겠습니다. 개혁정신을 종무에 반영하고, 승가 교육제도의 대폭적인 개선과 재가 불자들의 질적 향상과 조직 확대, 청소년 활동 지원 등 교육과 포교에 최대한 역점을 두겠습니다. 교량자와 화해자 그리고 중간자로서 종단 내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급기야는 자율과 자정 능력을 갖춘 승단으로 성숙시켜 나가겠습니다. 개혁과정에서 징계받은 스님들 가운데 개전의 정이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승가 대화합의 차원에서 대폭적인 사면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 종단 차원의 중장기 사업을 여러 대덕스님들과 협의하에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의 도덕성 회복에 앞장서며 사회 정의 구현, 복지봉사 부문에 깊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하여 통일의 여명을 밝히는 불교로, 민족의 역사를 계도하는 향도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도덕성 회복·새 문명시대 선도"

교육·복지·포교분야 대폭늘려

태고종 내년예산 20억 확정

태고종(총무원장 박서봉)의 내년도 종단예산이 20억 1천14만1천원으로 책정됐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 69회 정기중앙종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금년 18억 9천4백95만1천원보다 1억1천5백19만원이 늘어난 20억1천14만 1천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가운데 총무원예산은 11억 3천1만 1천원으로 금년보다 약 2.28%증액편성됐으며 월간불교와 한국불교신문 그리고 기타 불교관계 단행본 저작등 언론 포교를 위한 예산은 금년보다 2천2백만원이 증액된 5억4천백만 5천원이 책정됐다.

또한 태고종립불교대학인 동방불교대학 예산은 금년보다 6천7백94만원이 증액 편성된 3억7천6백12만5천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종회에서 책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동방불교대학의 예산을 금년보다22% 증액편성하는 등 교육사업과 사회복지사업비, 포교활동비를 대폭 증액편성했다.

혜운 대종사 공덕비 제막 신촌 봉원사서

한국불교 범패중흥조인 월하 혜운대종사의 공덕비 제막식이 지난달 25일 오후 2시 신촌봉원사에서 봉행됐다.

송암, 일응, 만봉 스님을 비롯 봉원사 주지 혜경스님과 영산재 보존회 이수자 및 전수자, 봉원사 신도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제막식에서 주지 혜경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혜운스님이 많은 후학들을 양성한 인연으로 영산재가 문화재로 지정되고 범음대학까지 설립하게 되었다."고 공덕비 설립배경을 설명했다.

선암사 선각당 상량식

태고총림선암사는 지난달 27일 선각당 상량법요식을 거행했다. 도선국사의 호을 따라 이름지은 선각당은 내년 2월 완공 예정이다. 한편 선암사는 선각당 신축을 비롯하여 지난 5월부터 중창불사를 시작, 진영각을 해체복원하였으며 응향각을 지난달 15일 역시 해체복원했다.

불자연예인 송년법회 14일 가든호텔

불교텔리비전이 연말을 맞아 '불교텔리비전 초청 불자연예인 송년법회'를 오는 14일 오후 6시 서울 가든호텔 무궁화홀에서 갖는다.불자연예인들의 단합과 연예인 불자모임의 활성화를 위한 이번 행사는 1부 법회, 2부 만찬으로 이뤄진다.

국가재난 소멸기원 희생자 천혼국재

태고종 유가족등 2만명 참석

'국가재난소멸기원 및 희생자 천혼국재'가 태고종의 주최로 지난 8일 오전 11시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에서 봉행됐다.

1부 국가재난 소멸기원법회와 2부 희생자천혼재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국재에는 태고종, 종정스님등 종단간부, 스님, 신도, 성수대교 희생자 유가족등 2만여명이 참석, 국가적 난제를 함께 극복하자는 국민적 의지를 다졌다.

사과드립니다 지난주 본지의 제작과정에서의 실수로 오식이 많았던 점 사과드립니다.

목탁소리

임 연 태 〈취재2부 차장〉

'空約'을 公約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지난달 30일 청와대를 방문 일곱개항의 대정부 건의서를 제출했다.

취임식도 하기전에 청와대를 방문한 것을 두고 교계에서는 '다시 친정부 불교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있었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스님의 방문은 건의서 제출이란 행정적 절차의 일환이었다는 점에서 우려의 소리를 일축시키고 있다.

대정부 건의서. 조계종의 건의서가 청와대에 접수된 것은 이번이 몇번째인가를 헤아릴 수 없을만큼 빈번했다. 그만큼 요구가 많았다는 얘기도 되고 정부측이 요구를 또 그만큼 안들어 줬다는 얘기도 된다. 이번 월주스님의 건의서 역시 새로운 것이 없다. 모두가 해묵은 것들이다. 해묵은 것들을 다시 신임 총무원장이 대통령에게 서한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것이다.

그만큼 불교계는 할일이 많고 또 정부측이 매끄럽게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2년 대선당시 김대통령이 공약했던 사항들마저 이번 건의서에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공약(空約)이 되어버린 공약(公約)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이미 닫힌 문을 두드리는 안타까움마저 자아내게 한다.

이 대목에서 불자들은 울분을 참을 수가 없다. '도대체 불교계를 어떻게 보길래'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다.

이제 조계종은 새 옷을 입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한 새 횡보에 앞서 취임식도 하기전에 청와대로 달려가야 했던 총무원장의 뜻을 정부는 의례적인 절차로 봐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종단의 입장이 절실하다면 그 여망이 다시 공전될때 수반되는 진통도 예상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건의서에 수록된 일곱가지 중 어느 하나 절실하지 않은 것이 없는 만큼 민족 문화의 근간을 이뤄왔고 미래 사회의 정신적 지주가 될 불교를 보는 정부의 눈도 달라져야 한다.

진리의 전화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
구룡사 부설 인생상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지혜의 문이 있습니다. 진리의 전화가 있습니다.
상담전화 (02) 579-3033

불음 가득 · 법향 가득

책방 여시아문은

국내 최대의 불교 전문 서적만을 취급하는 서점입니다.
60여 평의 여유로운 공간에
국내외의 불교관련 서적으로만 3천 2만 여 종을 갖추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은 초심자에서 학자에 이르기까지
독자들 한분한분의 기대에 따르겠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갈증을 풀어드립니다.
국내외의
서지정보(희귀본, 서적, 논문, 잡지) · 불교학술논문 · 불교문화예술정보 등
다양한 불교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이외에도
항상 불자 여러분의 공부에 충실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편안한 휴식공간입니다.
누구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서가 배치, 컴퓨터 검색 체제,
그리고 언제라도 편안히 앉아서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의 만남과 함께 법향 듬뿍 음미할 수 있는 곳,
책방 여시아문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시아문은 불자들의 자랑입니다.
여시아문은 삼보에 귀의하는 서점입니다.
불법 홍포를 위해 회향하는 서점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현대화 · 생활화 · 세계화를 실천하는 서점입니다.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전화 (대표) 737-8881 (서점직통) 737-0695 · 팩스 737-0696 교통편 전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32, 59, 84, 159, 331, 588-2번